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2년 도 하계대학총장세미나'

- 일자 : 2012. 6. 28(목) ~ 6. 29(금)
- 장소 :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 주제 : 대학의 미래 방향과 과제



대교협 동정



2012년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개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함인석 경북대 총장)는 2012. 6. 28일(목)부터 6. 29일(금)까지 1박 2일 동안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전국 201개 4년제 대학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의 미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함인석 회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전체적으로 고등교육비의 68.9%를 부담하는데, 우리 정부는 22.3%의 예산만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대학 등록금 지원문제는 그동안 민간부문에 떠넘겨온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일부 지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편이요,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전향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 홍승용 부의장(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은 기초강연에서 <대학의 과제 - 총장의 책문(策問)과 리더십>을 주제로 발표했다. 홍 부의장은 우리 대학의 현실과 미래 환경, 현재 진행형인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본과제 등을 설명하고, 변화의 중심부에 있는 대학총장들의 대책을 묻고(策問) 리더십을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의 대화시간에는 대학 자율화, 국제화, 재정 확충 등을 주제로 패널 토론을 갖고, 대학총장들과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 대학총장들이 관심분야별로 나누어 진행한 7개 특별위원회 분과 세미나에서는 위원회에서 제시한 주제를 연구한 교수들의 발표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는 “고등교육정책과 자율화에 대한 논의”, 대학재정대책위원회는 “대학재정관련 법률 입법동향에 대한 대응방향”, 법학전문대학원대책위원회는 “법조직역 자격 통합 및 법학전문대학원 추가 설치에 대한 검토”, 국공립대학발전위원회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제정에 대한 보완적 논의”, 사학법대책위원회는 “사립대학 관련 쟁점”, 대학평가대책위원회는 “대학기관평가인증 추진 현황 보고 및 쟁점 논의”, 국제화대책위원회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와 고등교육의 세계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 둘째날 마지막 시간에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국

토해양부가 추진중인 “대학 및 대학생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질의 -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178차 이사회 개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12년 6월 28일(목)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회의실에서 제178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이사회에서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관련 추진 사항, 강사지원제도 및 교육역량강화사업 개선방안 추진사항, 대학총장협의회 현안사항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이사 및 감사 보선(안), 육군사관학교의 회원가입(안), 규정 개정(안) 등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2012년 제5회 CEO특강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6월 26일(화) 창원대학교에서 서울경제신문, 서울경제TV와 공동으로 대학생들을 위한 CEO 초청 특강을 개최하였다.

□ 이날 강사로 초청된 김동철 두산엔진 사장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사람이 미래다'라는 경영철학을 강조하고 있는 두산그룹의 CEO답게 김 사장의 강연은 사람 중심의 인재상에 초점이 맞춰졌다.

□ 김 사장은 "무엇보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해야 한다"면서 "학생의 우선은 공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고 안 하고는 다음이고 지금 내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학생들은 공부가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사장은 도전을 하는 데 있어 주변에 핑계를 돌리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주문했다. "남 탓을 하거나 환경 탓을 하지 말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고 조언했다. 김 사장은 "유럽 경제위기로 국내 경기가 침체됐거나 부모님이 부자도 아니고 일류대학도 못 나왔고 든든한 배경도 없다는 식으로 주변을 탓하지 말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부터 해보자"고 지적했다.

□ 그는 젊은이들의 인생을 시계에 비교했다. "우리의 인생을 하루 24시간 시간대별로 구분해보면 100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1년은 14.4분 정도가 된다"며 "20대 청년

인 여러분들은 현재 새벽5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사장은 "아직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인 새벽에 불과한데 하루를 포기하겠냐"며 준비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 것을 주문하며 강연을 마쳤다.



부경대학교



□ 6월 27일 오후 부산항을 출항한 부경대학교(총장 박맹연) 원양승선실습선 가야호(1,737톤·선장 김종화 교수)에는 여대생들이 대거 승선해 눈길을 끌었다.

□ 이날부터 30일간의 대장정에 나선 이들은 부경대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기계시스템공학과, 수해양산업교육과 3학년 학생들. 모두 109명의 학생 중 22명이 여학생이었다.

□ 금녀(禁女)의 구역이던 원양승선실습에 여대생들이 처음 참여한 때는 1989년으로 올해로 24년째이다. 가야호는 여대생들이 불편 없이 승선실습을 할 수 있도록 전용 침실, 화장실,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 이들은 오는 7월 26일까지 중국 칭다오, 일본 하코다데,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등을 경유하며 총 2,928마일을 항해한다. 남학생들과 똑같이 조별로 4시간씩 당직 근무를 서면서 선박을 운항하고 그동안 강의실에서 배운 선박 운용 및 어업이론, 유사시 개인생존기술, 해양생물조사 등을 바다 위에서 생생하게 현장실습을 해가며 익히게 된다.

□ 이처럼 고강도 훈련을 마친 여대생들은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거나 어업생산관리기사, 어로산업기사 등 전공자격을 획득해 다양한 분야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 어선 안전지도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어업지도선에도 모두 6명의 졸업생들이 활약하고 있다. 지난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동해어업관리단에 어업감독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햇님 씨(02학번)와 반영은 씨(04학번)의 경우 동해어업관리단 설립(1966년) 이래 처음 국가어업지도선에 승선한 여성 공무원으로 기록됐다. 이어 2011년에는 서해어업관리단에도 강효정 씨(05학번)도 첫 여성 감독관으로 특별공개 채용돼 화제를 모았다.

□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이들 중에는 국토해양부 선박직 공무원(정승은 씨/06학번), 국립수산물학원 시험조사선 공무원(나은교 씨/04학번), 해양경찰(김민정 씨/05학번, 이유라 씨/06학번)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날 승선실습에 나선 손령 씨(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3학년)는 "실전경험을 쌓아 해양시대를 이끄는 항해사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단국대학교

□ 단국대학교가 국내 대학 최초로 '해병대군사학과'를 신설한다. 단국대(총장 장호성)와 해병대사령부(사령관 이호연, 중장)는 27일(수) 오전 11시 단국대 천안캠퍼스 대회의실에서 '해병대군사학과' 신설 및 엘리트 해병 장교 양성을 골자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 협약에 따라 단국대는 2013년부터 해병대군사학과를 신설하고, 올해 수시와 정시모집에서 총 30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단국대는 각종 군사학 관련 전공 교육을 통해 전문 장교인력을 육성하며, 향후 병과 선택과 진로 설정을 돕기 위해 복수전공 및 부전공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 입학생은 4년 재학기간 동안 해병대로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졸업 후에는 소위로 임관해 7년간 해병대 장교로 복무하고, 이후 장기복무하거나 전역 후 군사 및 안보분야 전문가로 진출할 수 있다. 단국대는 이들 전역자에 대한 별도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할 계획이다.

□ 또한 해병대 장교를 육성하는 만큼 해병대만의 특수성을 감안해 타 대학에 설치된 기존 군사학과와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단국대와 해병대는 '군사학과 운영 협의회'를 구성하고 군사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함께 조정한다. 해병대의 우수한 군 경력 인사를 군사학 및 안보학 교원으로 초빙하고, 재학생들의 학사관리, 훈육, 군사체육 등을 담당할 특별교원으로 해병대 출신의 교관을 배정한다.

□ 아울러 단국대는 '군사학 연구소'를 설치하고 군사학 기초연구 및 교재 개발,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군사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또한 '리더십 센터'를 설치하고 해병대 현역장교 및 예비역, 군사학과 재학생을 비롯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리더십 함양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 장호성 총장은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장교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군사학 석·박사과정 및 군 연수과정을 개설하는 등 군사학의 학문적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해병대는 장교로 복무할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해병대군사학과’ 신설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3월 6일 19개 대학이 참여한 가운데 모집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해병대군사학과는 학과특성상 우수학생 선발이 가능하고 졸업 후 100%에 가까운 취업률을 보장하는 만큼 대학들의 유치 경쟁이 활발했다. 총 11개 대학이 학과신설 신청서를 접수했고, 해병대는 4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군사학과 설치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단국대(천안캠퍼스)를 최종 선정했다.



전북대학교



□ 전북대(총장 서거석) 본부와 교수회가 총장 선출 방안 개선 여부를 놓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6월 19일 시작한 '총장직선제 대학본부-교수회 공동설명회'가 26일 생활대를 마지막으로 전 단과대학 및 전문대학원을 순회했다.

□ 이번 설명회는 총장 직선제 존폐가 오는 9월 교과부의 국립대 구조개혁 중점추진대학 지정에 가장 중요한 핵심 지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 진행된 것.

□ 대학본부와 교수회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총장 직선제 폐지 여부가 교과부 구조개혁 중점추진대학 지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타 대학 상황은 어떠한지, 구조개혁 중점추진대학에 지정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의 심각성 등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나눴다.

□ 이에 따라 대학 본부는 총장 직선제 존폐 여부를 포함해 선출방식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총장 선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대는 7월 중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해 존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소식



제10차 교육개혁협의회 개최 '지역대학 발전방안' 확정·발표

- 김황식 총리, 지역대학이 지역발전을 이끄는 '지역대학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
- 지역대학 특성화 촉진을 위한 LINC 사업 대폭 확대
- 박사과정 질 관리 강화 및 산학협력 학·석사 통합과정 활성화

□ 정부는 6월 27일(수) 총리 주재 제10차 교육개혁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대학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학생 모집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될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대학 발전방안을 보고하였다. 동 방안은 교과부가 지난 4월 16일 「지역대학 발전방안(시안)」을 발표한 이후 권역별 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대학 관계자,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된 것으로, 지역산업과 공생발전하는 지역대학을 위해 ①지역대학 특성화 촉진, ②지역의 우수인재 유치·지원 강화, ③지역대학 연구역량 강화 등 3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지역대학 특성화 촉진>

□ 교과부는 지역의 산업수요를 반영한 대학 특성화를 위해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의 규모를 2배 이상 대폭 확대하여 3,800억원 규모의 지역대학 육성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특히, 대학과 전문대학에 지원되는 기존 LINC 사업을 '12년 1,820억원에서 '13년 3,500억원으로 사업비를 늘리고 지원대상도 81개교(대학 51, 전문대 30)에서 100개교(대학 60, 전문대 40)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현장적합성 있는 인력 양성 위주의 LINC사업에 추가하여 특히 등 대학 연구성과의 기업체 이전이나 직접 사업화로 성과를 내기 위한 '성과 확산형' LINC 사업을 신설하고, 지역대학의 창업·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대학의 자율적 산학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및 대학 인사제도 개편 등을 지속 추진하고, 현장실습 지원센터 설치 및 학점인정 현장실습 확대, 기업특화 교육트랙 확대 등 현장중심형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한다.

□ 한편, 지역대학이 대다수인 국립대학의 여건 개선 및 특성화를 위해 '13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150명씩 국립대학 교원 정원을 확충하여 '25년까지는 교원 확보율 100%를 달성한다. 확보된 국립대학 교원 정원은 학문 융복합 및 유사학과 통폐합, 지역수요에 따른 대학 특성화 추진성과가 우수한 대학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지역 우수인재 유치 및 지원 강화>

□ 우수인재의 지역대학 대학원 진학을 장려하고 지역의 우수대학원을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Global PhD. Fellowship)의 지역인재 트랙을 신설한다.

※ 지역인재 트랙 선발규모(명) : 30('13년) → 50('14년) → 70('15년) → 100('16년)

□ 또한, 지역대학 학생들에 대한 국가지원 장학금(근로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및 공익재단의 장학 지원을 확대한다. 국가지원 우수장학금(이공계·인문사회계)은 비수도권 지원비율을 '12년 51% 수준에서 '13년 70%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학생에 대한 근로장학금 지원비율은 '13년 이후에도 70% 수준으로 유지한다. 또한, 공익재단의 장학생 선발 시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 비율을 '11년 31% 수준에서 '15년 5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편입학을 통한 지역인재 유출이 가중됨에 따라 대학 편입학의 규모 조정 실시 횟수 축소 등 편입학 제도를 개선한다. 편입학 규모 조정 방식은 현재 전임교원확보율에 따라 산정하던 일반편입학 여석을 4대 교육여건 지표*의 증감에 연동하도록 하여 개선하고,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5% 이내, 당해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이던 학사편입 선발 비율을 각각 '2% 이내와 4% 이내'로 축소한다. 편입학 실시 횟수는 현재 연 2회 실시하던 것을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을 제외한 후기편입학 전형을 폐지하여 연 1회로 축소한다.

* 4대 요건 : 교원확보율, 교사확보율, 교지확보율,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 지역대학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취업지원과 지역인재 채용 촉진을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취업지원센터를 신설하여 맞춤형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 교육과정에 '진로·직업교육' 관련 과목을 교양필수로 반영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진로 탐색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산업정책과 인력정책간 연계, 시도별·권역별 산학협력협의회 구성 등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산업기반 강화,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및 기업과 대학이 함께하는 지역인재채용 캠페인 등을 통해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 문화 확산, 지역대학 학생의 취업기회 확대 등을 적극 지원한다.

* '13년까지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30% 이상 달성

※ 삼성그룹, '12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시 35%를 비수도권 대학에 할당, 은행권, 지역대학 채용 확대(우리은행 60%, 농협 75%, 산업은행 50% 예정)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교양	교양+전공 단기 현장실습	전공 학기제 현장실습	산학공동 R&D 전공심화 등	논문연구 산학공동 R&D 등

□ 한편,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청년 기업이 양성을 통해 지역의 산업생태계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역대학 학생에 대한 정규과정에서의 체계적 창업교육을 강화하고 창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LINC 대학에 창업교육센터를 설치(대학 51개교, 전문대학 10개교)하여, 다양한 창업강좌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 창업 시 이를 현장실습 학점으로 인정하여 창업경험을 인정하고 학생의 학업 부담을 경감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이 창업지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도 다양하게 확대된다. 중소기업청 모태펀드에 별도 신설('12. 2월)한 '대학창업기업펀드', 일정비율의 대학 적립금(10% 이내) 및 연구비 간접비(5% 이내)의 교직원 및 학생 창업 지원이 가능해진다.

<지역대학 연구역량 강화>

□ 지역의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박사과정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을 강화한 산학협력 학·석사 통합과정을 활성화한다. '13년부터 박사과정 신·증설, 정원 증원 시 변경된 박사과정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이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며 석·박사간 차등 정원가중치를 부여한 상호조정기준을 마련하여, 일정 규모와 연구 역량을 갖춘 대학을 중심으로 박사과정을 운영 하도록 하고,

*관련분야 교원확보 : 7명 이상

교원연구실적 기준 : 확보교원의 1/2이상은 최근 5년간 3~6편, 계열별 상이 전임교원 강의비율 : 60%이상으로 운영(학점 수 기준)

◦ 연구역량이 우수한 대학에 연구개발 관련 대학원 지원 사업을 집중하는 한편, 박사과정을 소규모로 운영하는 대학원의 박사과정을 줄여 대학원 운영을 내실화하는 대학에 보건의료인력 정원 배정 시 우선권을 부여하여, 대학원의 질을 높여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장실습·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등을 통해 현장 실무능력을 높이는 산학협력 학·석사 통합과정(5년제)을 활성화하여, 지역 기업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석사급 우수인력을 양성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12.1.)으로 학·석사 통합과정 도입근거 마련, 현장과 연계한 교육을 통해 대학원생의 현장능력 제고가 가능

□ 또한, 지역의 연구거점 대학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대학에 대한 다양한 연구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특히, 지역의 우수대학이 세계수준의 연구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2단계 WCU사업 추진 시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대학의 박사급 '리서치 펠로우(Research Fellow)' 연구지원을 강화한다. 기초연구 지원 시에도 지역대학의 우수과학자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역대학의 연구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 지역의 5대 과학기술 특성화대학*간 상호 교류·협력 활성화 및 지역 산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기술과 강점 분야 연구 및 융합연구를 활성화하며, 우수한 국내외 인력과 세계적인 석학 유치 지원을 통해 세계수준의 과학기술 인재양성 기반을 조성한다.

* 대전 KAIST, 광주 GIST, 대구 DGIST, 울산 UNIST, 포항 POSTECH

□ 과학비즈니스벨트 기초과학(연) 캠퍼스를 지역별 기초 연구 거점으로 육성하고 인근 지역대학에 인력 및 시설·장비를 개방하여 지역의 연구기반 강화를 지원한다. 특히, 기초과학(연) 연구단 구성 시 연구단장 및 학생 연구원 등에 지역대학 교수와 학생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캠퍼스에 구축된 대형 연구시설 장비를 인근 지역대학에 개방할 계획이다.

□ 이와 같은 지역대학 발전방안 추진으로 지역대학이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자리잡는 한편, 우수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산업을 발전시키고, 우수인재가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김황식 국무총리는 회의에 앞서 최근 '신고졸시대'라 불리며 기업들이 고졸 채용을 늘리고, 특성화 고교 학생들이 취업을 많이 하고 있음을 고무적이라고 밝히며, 이러한 고졸 취업 문화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후(後)진학 시스템이 활성화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시간적 제약과 금전

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특히, 후진학 정책은 개인의 전문성 계발 목적 이외에 우리 사회의 “일류대학-일류기업”만을 성공의 기준으로 보는 잘못된 인식과 그로 인한 입시과열 등 교육적 병리현상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임을 강조했다.

□ 특히, 저출산 영향으로 금년부터 대입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지역대학이 경쟁력을 높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지역대학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는 “지역대학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기업 등과 적극 협력하여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12개 정부해외인턴사업 성과평가 결과 발표

-전문대학생해외현장실습, 플랜트해외인턴, WEST사업이 우수사업평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예산 조정 및 사업간 통·폐합 등 구조조정 실시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하태윤)은 7월 2일(월) “2011년 정부해외인턴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는 2009년부터 시행되어 온 정부해외인턴사업에 대해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참가자 만족도 조사 등의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처음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해외인턴사업은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11년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 후 평가인프라를 구축하여 금년에 사업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통합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성과분석과 평가가 시행된 것이다.

□ 금번 평가를 담당한 국립국제교육원은 성극제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각 사업의 관련 부처에서 추천한 사업전문가(6명)와 외부평가전문가(5명)로 “정부해외인턴사업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평가의 전

문성과 공정성을 기하였다. 평가는 사업계획의 합리성 및 실효성, 사업추진 의지, 정책유도, 개별 자율지표 등 4개 영역 12개 지표에 대한 사업보고서 평가와 글로벌 취업역량강화 정도, 수요자중심의 사업운영 등 2개 영역 24개 지표에 대한 참가자 만족도 평가로 구성되었다. 사업보고서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서면평가와 실사평가를 병행하여 이루어졌고, 참가자 만족도 평가는 인턴수료자의 약 10%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외부 전문업체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평가분야 및 지표 : 6개 분야, 36개 지표>

분야	사업계획의 합리성 및 실효성	사업추진 의지	정책유도	개별자율지표	글로벌 취업역량 강화정도	수요자중심의 사업운영
평가방법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설문조사	설문조사
평가지표	사업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 등 5개 지표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 3개 지표	저소득층 비율 등 2개 지표	자율평가지표 등 2개 지표	글로벌 리더십 역량 향상정도 등 12개 지표	사업운영의 편의성 등 12개 지표

□ 2011년 정부해외인턴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전문대학생 해외현장실습, 플랜트해외인턴, WEST 사업이 우수 사업으로 평가되었고, 국제전문여성인력 양성, 글로벌 무역전문가 장기인턴,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교사대 졸업자 해외진출, 전시회 해외인턴 및 중소기업 해외인턴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 인턴사업에 비해 근무환경이 열악한 해외관광인턴, 해외농업인턴, 외식기업 청년인턴이 보통으로 평가받았다.

<정부해외인턴사업 평가결과>

평가 등급	사업명
우수	전문대학생 해외현장실습, 플랜트 해외인턴, WEST
양호	국제전문여성인력양성, 교사대 졸업자 해외진출, 중소기업 해외인턴, 글로벌 무역전문가 장기인턴, 전시회 해외인턴,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보통	해외관광인턴, 해외농업인턴, 외식기업 청년인턴

□ 특히,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전문대학생 해외현장학습은 전문대학협회가 주도하여 새로운 국가 및 인턴업체를 발굴하고 동 프로그램이 안착된 이후에는 전문대학 자체에서 운영토록 하고, 어학 및 전공의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 참가자를 양성하는 등 전문대학생에게 맞게 차별화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다.

○ WEST 사업은 한·미 정부간의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공신력이 있고 학생선발, 현지관리, 사후관리 등 참여기관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고 협력적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인

턴십을 제공하며, 타 사업에 비해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 글로벌무역전문가 장기인턴과 플랜트해외인턴의 경우, 수료자의 누적 취업률이 70% 이상(글로벌무역전문가 장기인턴 79.4%, 플랜트해외인턴 72.4%)으로 나타나 취업 연계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교사대졸업자해외진출은 상반기 5명 전원이 미국 교사자격증을 취득하여 3명은 현지 미국학교에 취업하였고, 하반기 장기과정 13명도 전원 미국 교사자격증시험에 합격하여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13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예산 및 인턴규모를 조정하고, 유사·중복성이 있는 사업간에는 통·폐합을 실시하는 등 성과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결과에 사업별 강약점 분석 및 정책권고 등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사업 개선을 유도하고 사업간의 장점을 벤치마킹하여 유기적 협력을 통해 통합의 시너지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귀 대학의 정보를 홍보할 수 있도록
기사와 사진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사 보내주실 곳: weeklynews@kcue.or.kr

지난 주간대학교육(국문) 보기:
<http://www.kcue.or.kr/>->대학교육소식->주간대학교육

* 구독신청
대교협 대외협력팀으로 연락을 주시면
(02-6393-5308)구독자로 등록해드리며
매주 1회 개별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